

blessing will be agricultural (Joel 2.21-26, Ezek. 36.29, 30), with great bounty of grain and wine. But the greatest blessing of all will be that God will come to dwell in an extraordinary, permanent way with His people:

Joel 2.27: Then you shall know that I am in the midst of Israel, and that I am the LORD your God, and there is no other...

Ezek. 37.27: My tabernacle also shall be with them: indee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And as part of this crowning work of dwelling with His people, God will pour of His Spirit upon all, to speak His words (Joel 2.28 (3.1), and to receive new hearts, hearts of flesh (Ezek. 36.26). The out-pouring of the Spirit in the last days will thus have at least these two kinds of manifestations. And from the language used and the identical context and framework it seems unavoidable to conclude that these two events will coincide in time as one great out-pouring of the Spirit, whereby God will indwell and sanctify His people forever:

Joel 3.17: So then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dwelling in Zion My holy mountain.

Ezek. 37.28: The nations also will know that I, the LORD, sanctify Israel, when My sanctuary is in their midst forevermore.

We have looked at some aspects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the OT. There, He is portrayed as Person (especially in the light of the NT), as creator, as the supplier of prophetic words, and as the source of inward renewal for Israel. Where the Spirit is, there is liberty (2 Cor. 3.17), and there is new life. The OT gives us a never-ending source of illumination to understand His great work with and in us. Let us praise Him for the riches of His work and the fullness of Himself, "the Lord and giver of life,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who together with the Father is worshiped and glorified, who spoke through the prophets" (Nicene Creed).

## 성서적 경제사상

고 왕 인

(한양대교수 역임, 헨리조지협회 전회장)

"경제사상"이라면 바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다소간 생소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성서적"이라는 한정어구가 그 앞에 붙는다면 관심이 반감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 이천년의 역사에서 성경의 복음 전리는 사회의 각 방면에 있어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인류생활에 정착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실상 성서의 경제사상이라면 기독신앙자들뿐 아니라 비기독인들까지도 그 근본적 이념에서부터 다시 한번 뿌리를 더듬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의 주류적인 여러 갈래의 경제사상들을 살펴볼 때,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토양에서 자란 것이고,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는 실상은 기독교의 종말론과 천년왕국 운동의 왜곡된 형태로서 유물론적인 시도라고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마호메트교적 사상까지도 셈족 근원의 유일신 신앙과 기독교적 메시야 사상이 토속종교와 결합하여 잉태된 것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적인 모든 사상의 줄기들이 어떠한 큰 맥을 이루면서 사회 현상들의 저변을 조성하여 있는지 밝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류 역사의 변고점에 이르는 현대에 있어서 미래적 사회상황이 진실과 사랑에 기초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형태로 익어갈 수 있도록 "성서적 경제사상"을 정립하여 나가야 하리라 생각한다.

일찌기 R.V. 예링은 법철학자로서 국민들(또는 공동체 구성원)의 "법의식"은 법감정에 근거한 것이고, 권리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러한 법감정이 발생하는데, 국민이 법을 행위하기 위하여 쏟은 정성과 사랑과 희생이 곧 국민과 법 사이의 결속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도 "경제사상"이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원리로써 이념적 유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식"처럼 사회의 기본적인 성립요건으로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아 "사회체질화" 되어가는 그러한 윤리·경제·정치적인 원리로써 작용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성서는 이러한 기초작업이 실천을 통한 체질화·습관화에서 비롯되는 것을 명백히 해주고 있으며(눅6:46 이하), "성서적 경제사상"이란 철저한 회개와 실천을 통한 영성적 특성(Spiritual Personality)의 확립에 의하여 참된 "사상화"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

나 성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상의 줄기를 이끌어 내기전에 이러한 사상이 개인적인 영성으로만 강조될 수는 결코 없는 일이며, 사회전반에 걸친 흐름에 균형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함은 명백한 일이다. 물론 이렇게 사회전반에 파급하여 가는 과정상 어떠한 특정 진원지의 존재가 필요하며, 이러한 진원지는 그 사회의 공통적 특질을 잘 보존하고 있는 개체 공동체일 뿐 아니라 심원한 영성적 각성을 통하여 그 사회의 역사적 미래를 통찰할 능력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타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조적 특질을 보유하게 된 공동체이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과연 성서적인 경제사상은 존재하였는가 하는 것과 존재하였다면 어떠한 형태로 역사중에 나타났는가 하는 점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신약시대 이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소화하기 위하여 민족의 생존과 역사를 송두리채 천박한 유랑민적 체질과 싸우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한 신앙공동체를 본다. 그들은 히브리인들로 불리는 한 조상의 자손들로 구성되고 주변 민족들과의 투쟁에 의하여 그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져 가는 유목민들로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전수받아 광야생활 40년간을 거치며 교육시킨 죽속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들이 “지키며 그 안에서 생명 얻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저주를 받아 전세계로 쫓겨 날 것을 이미 신탁을 통하여 알고 있었다(신29:28). 그뿐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면 광야생활 중 음란한 기풍이 백성 중에 퍼졌을 때, 하나님의 의로 우신 진노하심을 대신하여 회중 가운데 음란한 남녀를 결연히 처단한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생존하여 있던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죽속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그들 중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켜야 될 정도로 윤리적으로 급속한 타락의 징후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사사기의 기자는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옮은대로 행하였다”고 한다. 즉 사회적 타락의 원인을 통제하지 못한 사회상에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적 경향이 명백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4장 이하에 보면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졌으므로”, 이방나라 사람들이 “이는 큰나라 사람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즉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례들은 3500년 전 당시의 수준으로 볼 때에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원리를 잘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법도들이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당시 또는 그 이전의 주변 민족들의 법들과 어떠한 연관이나 유사성을 가지든지 아니 가지든지간에 그 제사법의 완벽한 의미들과 윤리법들의 심오함과 경제법의 균형잡힌 체계에 대하여 놀라마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윤리법에 있어서, 우리는 그 법 내의 원리상, 마음의 윤리(신19:19, 출20:12, 신30:6), 생명의 윤리(레17:

11, 신12:23, 22:8), 자유의 윤리(민12:15), 성결의 윤리, 안식의 윤리, 교육의 방법 등 가장 현대적인 개념으로라야 포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경제법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기본 수요 충족의 법칙, 자본 증식의 법칙, 평균의 법칙(시간적 또는 지역적), 자유의 법칙, 휴식의 법칙, 노동의 법칙, 공생의 법칙, 갚음의 법칙, 되무름의 법칙, 토지관련의 법칙, 공평의 법칙, 이외에도 더 많은 법칙이 있지만 저변층의 생활을 위하여 곡식과 과일을 추수 현장에 남겨놓을 줄도 아는 자비와 넉넉한 마음을 가르치는 심정적 법칙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모든 법들 위에 사회(또는 공동체) 영성적 쇄신을 위하여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설치하고 이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 구약에 나타난 율법제도는 성서의 여기 저기에 산재된 생활 규범으로서의 율례와 법도만으로 파악하면 안되고, 그 모든 제도는 희년—안식년, 제도에 내포된 실질적 사회규범으로 인식해야 한다. 즉 희년사회라는 경제적 이상사회의 뚜렷한 모습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연구하여 보면 발견되는 것이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민족과의 투쟁을 통하여 율법준수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습의 시대(사사기 시대)를 통과한다. 이 학습의 시대 마지막에, 사무엘 선지자에서 다윗왕에로의 사상적 계승은 새로운 신앙적 왕정제도로 사회의 제도적 재편을 큰 충격없이 결실 맺도록 하였다.

이는 후에 솔로몬왕에게서 결실한 대제국의 면모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순전한 하나님의 법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왕의 삼금법”(王의 三禁法: 신17:14-20; 재물·권력·쾌락의 제한) 중 쾌락의 금지 조항을 어긴 후, 제국의 뿌리에는 독초와 쑥이 기생하게 된다. 이것이 역사의 맥을 따라 내려가 보면 후에 제국의 몰락에까지 이어지는 비극의 원인으로 잡혀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다윗의 선에서 우리는 당시의 세계적 제국으로서 이집트식 관료제의 일부 채택, 이방인 균위대의 편성, 국세조사, 여러가지 정치적인 조치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질적인 차원의 통치술 내면에 흐르는 율법적 지거사상의 행동화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막대한 왕가 재산의 성전 건축용으로의 헌납, 모압의 말다리 힘줄을 끊는 것 등으로써 이같이 비록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서도, 또한 성전 건축과 제사법, 찬양법의 확립 등 눈에 잘 띄는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실질적 경제방침에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후 선지자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는 남북왕조를 이루며 차례로 멸망하여 가는 동안, 세계의 역사를 십판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염어가게 된다. 이것은 내면적 성장의 시대였으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메시야 대망의 시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적 성장은 반드시 경제적 사상의 측면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미가와 에스겔, 또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회년사회와 관련된 예언들을 여러곳에서 하고 있으며, 민일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다루어진 미래 회년사회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경제사상적인 측면에서 재해석을 내릴 수 있는 성경구절들은 더욱 증가하리라고 본다.

선지자 시대의 성서적 경제사상의 맥을 이어 그 명확한 실천적 형태를 보여 주었던 것은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의 깨거렸으며, 그 여호와 예배의 회복은 남조 유다왕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이미 멀망한 북왕국의 지역에까지 정화의 불길이 당겨지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요시야-예레미야의 개혁은 종교적인 면에 그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윤리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때의 개혁은 얼마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의 마음에 여호와 종교와 그 경제적 사상을 깊이 인각하여 바벨론 유배시절을 거치는 동안 세계적 문물을 대면하며 여과되게 하였을 것이며, 도가니 속에 정금이 정련되듯이 그 이후에 올 에스라-느헤미야의 개혁을 위하여 신앙과 생활에 대한 확실한 관점을 세워주었을 것으로 본다. 성서의 주요 부분들을 편집했다고 알려진 에스라 이후 어려운 역사적 상황을 겪으면서, 마카베이 하스몬 왕조를 거쳐 예수님의 시대를 이르는 동안, 유테인들은 하딘이나 그 분파인 바리새파처럼 생활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풍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 일례로 안식일에 전쟁을 하지 않으므로 안티오큰스·에피파네스와 같은 자를 인식일을 골라 전투하여 유테인을 학살하는 경우까지도 생겼던 것이다. 경제사상이 지나친 "교화"로 균형감각을 상실한 이러한 세태로 말미암아 사회적이고 신앙적인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으나, 동시에 바리새·사두개·질로트·에세네 등의 주요한 신앙적 분파들이 자체의 성격을 확고히 하면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위상을 명백히 하여주고 그 역사적 성격을 확실히 하여 주는 신적 목적에 충실히 쓰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더욱 명백하게 밝혀진 하나님의 원리는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성품"을 여러 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격과 신성"이 "인자(Son of Man), 즉 벤·아담-인류의 후사이며 만유의 후사(후계상속자)"로서 오셔서 인간의 역사안에서 만유를 회복하시고 만유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케 하시려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 의하면, 자신의 부활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원리를 세상에 도입하셨는

데, 이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현 존재계의 엔트로피적인 원리를 역전시키는 "새로운 피조물"의 논리였다. 그의 "신성적 인품"이십자가 사건에 나타났다면 그의 "인자된 권세"가 부활로 확증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주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에게로 촛점이 모아지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확산의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확실한 사건을 "예수 사건"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며 예수사건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또는 온갖 "예수 현상"의 근원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역사속에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예수현상을 그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그는 신학자들의 말과 같이 자신 속에 "내장이 온통 찢어지는 듯한 절친한 연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참사랑"을 품고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변화산의 체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적절한 해석으로 평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초월적인 간접에 의한 변화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신적 간섭이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라는 것과 이것은 예수의 내적인 승리에서 비롯되며 그 승리는 반드시 외적이고 현실적인 결실로서 보여지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언약한 "성령강림의 약속"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막16:16이하)라는 말씀에서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인 우리들로서는 무한한 절대자 하나님께서 성육하신다는 사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한편 "부활체"이신 예수님의 개체적 존재가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예수현상의 씨앗으로써 "예수 공동체"(예수의 몸)을 장성케 하여 회복된 상태의 우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로 바치게 된다는 이 거대한 사실도 인간이 믿을 수는 있지만 결코 이해할 수는 없는 현상인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구약적인 경제사상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경제사상으로서 정립될 수 있는 것인가. 대답은 긍정적이다. 그것은 구약의 회년사회의 이상이 율법의 모든 정신 속에 보존되어 있고 그 율법의 일점 일획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예수님의 확인 속에 이미 대답된 것으로 본다. 사실상 회년사회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인 것이다. 이것은 언어의 유희나 비약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예수의 인간적 성품 속에 회년사회의 정신이 조화된 총합체로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품은 "예수 공동체"(예수의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곧 참다운 교회)로 유전된다. 이 성품은 예수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수록 완벽하여 진다. 이 성품은 신성이며, 하나님은 자기의 신성을 만물에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 속에 움직이신다.

회년사회의 모델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인하여 이같이 더욱 완전하여 졌고, 이는 다시 요한 계시록에 언급된 천년왕국의 모델로 이어지게 되는데, 신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의 모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증거한 대로 땅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이는 땅의 회복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는 회년사회—하나님의 나라—천년왕국으로 이어진 경제사상의 맥락이 가시적인 현상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불가사의적인 천국의 “글미자”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본다. 천년왕국을 논할 때에는 그 예언된 왕국의 형성 과정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회의 정태적 구조와 동태적 메카니즘들을 회년사회와 하나님 나라의 밝혀진 원칙에서부터 찾아내어 재구성하여 보는 것이 성서적 경제사상을 확립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 또는 미래의 회년사회에 대하여 먼저 성서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사회구성의 원론으로서 공동체론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면, 공동체 문제에서 가장 핵심되는 연구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문제이다. 죄는 파괴하고 분리시키고 가로 막는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아니고 공동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죄의 본질은 인간이 현상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택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죄의 본질은 인간의 영성에 허위가 침입하게 하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게 침범하였듯이, “허위”는 모든 공동체에 생명을 앗아간다. 예수공동체도 예외가 아니다. 성서를 상고하면 이 허위의 죄악에서 다시 두 가지의 죄가 파생되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첫째는 공동체를 구조적으로 파괴하고 구성원을 분리시켜 외형적으로 무너뜨리는 “강포”이다. 강포는 폭력의 영적인 원형으로 남을 자기 마음대로 전횡하고자 하는 죄이다. 또 하나는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서있는 자리에서 썩어버리게 하는 “퇴폐”이다. 퇴폐는 음란의 영적 원형인데 구성원간의 관계가 물인격적이고 비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다. 음란의 존재여부는 공동체 생명력의 바로메터이다. 이러한 허위—강포—퇴폐의 3대 죄악이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것인데 성서는 여기에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방법론을 적절하게 제시한다.

그것은 신인의 양면에서 다룰 수 있는 데,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면에 대하여 살피면 우선 영성위주의 생활을 사는 것이고, 또한 적극적인 선(“적극선”)의 생활을 사는 것이다. 영성위주란 환연하면 말씀에 근거한 경건생활을 의미한다. 그렇게 살아야되는 이유는 생명이신 예수께서는 “경건의 비밀”이시기 때문이다(딤전3:16). 경건학자에게 영적 생명이 흘러들고 경건한 영성위주의 공동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또 “적극선”的 개념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에서 발견되는데(창4:7) 죄에 빠지지 않기 위

하여는 죄를 다스려야 하고 죄를 상관하여 다스리는 고달픈 입장에서 벗어나려면 (적극적으로) 선을 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이같이 행할지라도 공동체는 참된 생명있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 신의 도움 없이 사람의 노력은 무용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열어 놓으신 길이 있는데 이는 신본주의적 사상과 성령의 역사이다. 오직 하나님 위주로 살 수 있는 말씀의 계시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그리고 인간공동체의 종합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 역사만이 공동체를 참다웁고 생명있고 신적 성품이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는 이같이 구성되며 생명을 얻고 움직이는데, 성서적으로 보면 이러한 예수공동체만이 영존하며 영속적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된다. 다른 공동체들은 다 허망하여 웃처럼 바뀌어 갈 것이다. 성서는 대자연까지도 바꾸어 입을 옷에다 같이 비유한다.

성서적 경제사상은 공동체론이 “코이노니아”적인 부분으로 보완되어야만 완성된 형상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동체론”은 말씀의 현현으로 “일치된 집단”에 대하여 다루는 논리인데 이는 존재론적이며 정태적인 사회론의 부분을 메꾸는 것으로서, 우리가 체와 용을 논할 때 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론은 성서적으로 보면 결국 예수공동체를 다루게 된다. 그러나 한편 코이노니아론은 같은 말씀이 현현을 통하여(렘1:9-10) 세계 역사상에 나타난 공동체들의 일치화 과정을 취급하게 되는 관계론적 논리이며, 동태적 사회론의 부분을 메꾸어 주게되는데, 곧 용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코이노니아론은 역사관을 확립시키는 데 유용하며 결과적으로 역사상 그리스도적 일치를 통하여 공동체들이 통일되어 가는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것이다. 성서적인 경제사상은 세상의 종말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지만, 종말에 대한 신앙인의 관점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역사참여의 행동에 있어서 차이점이 생길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하에서도 성서가 지지하여 주는 공동체론과 코이노니아론에 근거하여 실질규범과 코이노니아론에 근거하여 신진 규범과 제도들을 확립하여 나갈 수 있는 명백한 가능성들을 발견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안목을 가진 성서적 경제사상들의 계열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존 칼빈의 후예들이 스위스, 영국, 미국, 네덜란드에서 이룬 사상적 업적들을 들 수 있겠지만, 카톨릭에서 제2바티칸회의 이후로 성령시킨 기독교 사회론들과 그 적용, 재 침례파와 재림파류의 약간 편벽한 듯하나 현실적인 용도가 있다는 생각들, 개척자적 정신으로 현실을 살아간 모라비안교도들, 월도파들, 또한 예수가정의 공동체 경험들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신앙의 중인들이 허다한 생활의 증거들을 남기고 간 것이다.

비록 믿음의 길과 별개의 것으로 자신의 사상을 선전하기는 하였으나, “단일 지대세”라는 충실했던 기독교적 유래를 가진 토지법을 전세계에 소개한 헨리 죠지는 역시 이같이 중인의 대열에 합류시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의 사상을 보면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충만하며, “정신능력이 진보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는 사상같은 것은 “영성이 역사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성서적 사상을 사회적으로 재해석하여 보급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코이노니아의 원리도 깊이 깨닫고 경제법칙에 적용했으며 성서적 유기체론에도 깊이 영향받았다고 본다. 헨리 죠지와 같이 성서적 경제사상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성서적 경제사상이 적용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많은 경우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적용모델을 발견하려 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적 역사의 현실적 사회 개입을 가로막는 것을 본다. 그러나 성서는 요나-니느웨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믿는 이가 절대다수인 사회가 아니라 불신자로만 이루어진 니느웨같은 강포한 사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을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원칙들을 받아 이것을 선포하게 되면 그 사회는(또는 공동체) 신 앞에 응답하여야 하는 위치에 서고 신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고 본다.

이제 본 논문을 통하여 성서적 경제사상을 생각해 보는 이유는 인본주의적 사회론들이 사회를 풍미하고 사회구조가 거대화하여짐에 따라 생겨난 비성서적 생활방식에 밀려 떠내려가는 수많은 잃어진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봄담고 사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해야 할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인본사회는 신본사회로 변혁되어야 한다. KAI

## 공동체의 생명력과 정신성

인간 사회는 그 심층부에 생명의 능력의 원천이 있다. 그래서 일리히는 “인간과 세계에는 인간적이고, 초인간적인 생동의 힘이 활동하고 있으며, 뮤어 두지만 않는다면 바로 이 힘은 새 조직과 새 세계를 선설할 수 있는 힘으로 승화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 세계는 공동체적 현상이 부단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 궁극적으로 인류현상은 공동체를 이루거나가는 현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반하는 듯한 현상으로 써 근대 이후로 더욱 가속되는 사회 분화 현상은 공동체의 파괴현상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어떠한 현상이든지 거기에는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마땅히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마련이며, 이로 인하여 인간은 피투자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상기한 사회 분화 현상을 바른 시각으로 본다면 일견 공동체 파괴의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공동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화 과정(stabilization process)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안정화 과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비대화와 더불어 무수한 공동체들의 다양한 특질들이 사회 속으로 확산되며 평준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공동체나 특정인이 전체 사회의 운명을 전횡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사회분화로 말미암아 노동의 기능화, 가치계측의 가격 일변도 체계, 사회적 신분의 상징화 등을 통하여 비인간성이 조장되고 사회 문제들이 산적하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체적 사관에서 보면 이 모든 폐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생명력이 인류의 깊은 내부에 잠재하여 있다고 확신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공동체의 생명력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체계화할 의도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학적인 논문에서는 도무지 실어 담을 수 없는 절규와 같은 외침으로 “인류가 이제 공동체적인 방향으로 진로를 잡지 않고서야 어찌하려 하오”하고 눈물을 뿌려 애소하는 것이다. 공동체 사관은 마땅히 자료를 통하여 증명되고 자지되어야 하며 이는 앞으로 중요한 사상적 작업이 될 것임을 밝혀 둔다.

그러나 우리의 당면 문제는 공동체의 생명력과 정신성의 관계를 밝히는데 놓여 있다. 이것은 이 논문에서 공동체와 땅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만큼이나 중요한 명제이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다룬 글 중에 이런 대목을 발견한다.

“문명을 이끄는 세력은 예술이나 과학이나 정부가 아니다. 그것들은 문명의 열매들이다. 그리고 문명의 뿌리는 초보적인 면에서 다음의 기본적 특성을 갖는다. 즉 선의, 이웃간의 정의, 떳떳한 경쟁, 용기, 너그러움, 활달한 질문, 침울성 등이다. 이런 특성이 풍부한 국민은 위대한 예술, 과학, 산업, 정부를 가진 위대한 문명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이 기초적 특성이 희미해지면 아무리 부가 축적되고,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아무리 무화가 발달할지라도 그 문명은 힘없이 허물어질 것이다.”

이런 용기있는 단언은 마치 “문명의 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세계사 형태학”이라는 과학적 방법론을 세우고 서양의 물력을 단정한 슈펭글러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상기한 진술은 관념적 기술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역사회개발에 투신했던 경험에 근거하였으므로 지극히 신뢰할만 하다고 본다.

위에서 말한 바 “문명을 발전시키는 뿌리로서의 인간의 기초적 특성”은 무엇인가. 대인관계의 태도, 사물을 대하는 자세, 그저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인가. 이러한 사회적 태도를 갖출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정신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정신성이야말로 공동체 내에서 건전하게 함양되고 발전되는 것이며 또 공동체가 이러한 정신성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라면 이를 “공동체적 정신성”이라고 명명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니이버는 말한다. “인간 관계가 밀접한 곳에서는(그리고 사랑은 오직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충분히 효과적이다) 사랑의 길이 정의에로의 유일한 길이다. 생활이 밀접하게 얹혀 있는 곳에서는 행복을 서로 나누지 않으면 그 행복은 파괴되고 만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 소규모 공동체적인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사회전반에 대한 논평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순수한 공평두사의 도덕을 집단관계에 옮겨 보려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전쟁후 미국 흑인들의 백인들에 대한 굴종적인 도덕성과 파시스트에 대한 이탈리아 사회주의자들의 평화적 정책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모멸되고 무시되었는가를 설명한다. 또 다른 곳에서 니이버는 부하린의 말을 인용하며 사회주의 세계에서 부딪힌 정신적 장래를 설명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이상 사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은 완전히 인간 본성의 한계를 무시한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보다 자기의 필요의 압력을 더 느낄만큼 이기적이다. 모든 사회는 상충하는 필요를 역사의 목적에 알맞게 존중하는 방법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자발적 교환을 행동원칙으로 삼는 자유시장 체계가 하나의 과정으로서는 보다 도덕적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자칫 본 체계의 궁극적 목적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매음행위라든가 마약 판매, 과도한 음주, 도박 등이며, 이외에도 지하경제, 투기, 매수, 부정·부패 등… 경제 부조리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체계 그 자체의 부도덕이라고 협사리 단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체계 내부에 사람들이 설정하는 목적이 더욱 문제이며 …목적 설정의 주체는 인간의 깊은 마음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신성의 중요성에 대한 또 하나의 예증을 발견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동의 생명력, 나아가서는 사회의 생명력과 정신성과의 관계를 밝힐 필요성을 느낀다.

만일 우리에게 완벽한 공동체의 소규모 모델이 있다고 하자. 현실 속에 그러한 이상적 모델이 성립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첫번째 조건은 상호 신뢰의 관계이다. 신뢰는 공동체 형성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으로써 특히 심성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 기본이 된다. 이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

여도 유지되는 가정이나 제1차 집단들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집단을 공동체라고 부르기는 마땅치 아니하다. 1970년대 초기에 미국에만 약 100,000명 정도의 인구가 소규모 콤뮌(commune)에 가입되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들 중 성공적인 콤뮌에서는 대부분 성원들 사이에 “성실성과 헌신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성실성과 헌신은 신뢰관계를 형성시키고 또 역으로 신뢰관계에서 성실성과 헌신이 도출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코뮌이 1~2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신뢰 관계가 깨어지고 헌신을 유도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의 헌신은 “자발적인 헌신”으로써 “각 개인이 가진 바 자원을 자원적으로 바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성실성이라는 것도.. “건전한 자의식에서 유래하는 성실성”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신뢰-성실-헌신의 “삼각적” 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삼각 상태가 공동체의 삼각 결합을 위한 기반이 됨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가지의 특질을 기본적으로 갖춘 정신성(mentality or spirituality)이 공동체적 형태인 공동체에 끼쳐져 있을 때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파괴되거나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하면 상기한 논리가 인정되리라 본다.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신뢰관계의 파괴이다. 그런데 이 신뢰관계의 파괴는 허위 또는 거짓 행위가 반드시 개재된다. 이러한 거짓된 언행은 그 심층 심리에는 상대를 전폭적으로 믿지 않거나 한편으로는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러낼 수 없을 때 야기된다. 이런 상황을 불신관계 또는 허위적 관계라고 규정한다면 이런 인간관에서 배태되는 두 가지 명백한 부정적 정신성들이 있다. 그 하나는 “건전한 자의식을 잃는” 상태이며, 우리가 보통 “불성실”하다고 부르는 삼각 자세인데, 그 심층 심리는 “나와 남의 적절하고도 명백한 인격적 인식”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것이 경제현상, 정치현상과 연결되면 분배적 사회정의나 인권적 사회정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폭력성”(violence; 폭력적 정신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폭력성이란 “나와 너”的 양자관계에서 “나”的 소욕대로 상대를 좌우하고자 하는 사회적 행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는 비인간화되고 “나 또는 우리”的 욕구를 투자하는 가학중적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공동체적 관계란 맷어질 수가 없다. 이같이 폭력성 또는 “강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신적 원형이다. 비록 소규모의 애착적인 공동체에서는 불성실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사회의 규모로 가면 강포라는 행태로 정착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신(spirituality)이라는 개념은 “인격(person)간에 맷어지는 관계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러한 언급을 발견한다. “권력에 대한 야욕은 실패한 사랑의 쌍동이일 뿐이다. 권력은 사랑에 대한 대체물이 된다. 어느 정도 사랑을 통하여

노력하여 성취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은 권력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한다. 자기 완성을 위하여 또한 고독과 소외를 극복하고 자신을 전체(whole)로 만들기 위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왜곡된 사랑이 어떻게 권력욕의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다. 성실과 강포의 관계도 이와 동질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강포는 거대 사회로 갈수록 좀더 제도화된 권력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양식을 활용하여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사회화된 강포한 정신성은 제도와 생활양식을 변화시켜 개인들이나 소규모 공동체들이 공동체적인 특성을 잃어가게 하고 나아가 전체 사회는 유연성을 잃고 인간을 위하여 제도화된 모든 선의의 이념들의 인간을 압박하고 질곡에 빠뜨리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강포한 사회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로써 일리히는 "근본독점"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고, 용기를 듣우어 주고, 여행을 하고, 지식을 얻고, 집을 짓고 죽은 이들을 장사지낼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벼릴 때 근본 독점이 자리잡는다. …처음에는 장의사들이 대 도시에서도 고객을 얻기가 힘들었다. 60년대에 이 기업들은 세묘지의 감독권을 얻어 가지고 판과 의식과 시체의 방부처리 등을 포함하는 도급계약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법률이 하나 제정되어서 장의사에 의뢰하는 것을 의무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장례식의 근본 독점이다.

임실(전라남도)의 치즈공장도 이러한 경우이다. 어떤 노령의 신부가 지역 공동체의 소득증가를 위하여 필생의 사업으로 치즈공장을 설치하고 상당한 매출이 눈에 보이자. 정부가 했다고도 할 수 없고 관련 재벌이 했다고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위생법규와 관련하여 문을 닫게 되고 어떤 재벌 그룹에서 치즈 공장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고가의 위생시설과 함께 설치하여 시장을 독점한다. 이것은 어떤 농부가 이미 피부로 인식하고 있는 근본 독점현상이다. 이러한 강포의 정신성은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폭력적 행사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시켜 지역공동체를 파괴시킨다. 이같이 공동체가 파괴된 상태가 사회주의적인 시각에서 볼 때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이론으로 설명되는 현상이며,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지배를 단일 메카니즘에 통일시킨 정경유착의 상태까지도 이를 수 있는 그 첫번째 관문은 강포의 심성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강포의 논리가 빚어내는 공동체 파괴 현상은 개별적 국가 내에서만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도 그 공동체 파괴의 심각성은 새로운 사상적 돌파구와 정치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치유 불능으로 보인다. 국제경제도 국제 경제로 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치유 불능으로 보인다. 국제경제도 국가 경제로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이어서 주변부 국가들의 중심부 국가들에 대한 자본과

기술 측면의 "종속"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빙국들의 원료들에 대한 부국들의 점증하는 "의존"이 모든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를 새롭고도 극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키고 있다. 강포는 세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이제 공동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불신관계 혹은 협력적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 강포한 정신성과 함께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또 하나의 부정적인 정신성이 생겨난다. 누구나 이 정신성의 존재와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에 대하여는 잘 인식하면서도 그 전반적인 극복책에 대하여는 경제적·정치적 부정의에 대한 논의만큼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현대인은 그것을 누구나 일상 중에 경험한다. 퇴폐적 정신성은 윤리와 문화의 문제라고만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이것이 정치 경제적인 사회문제에, 특히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본질적이고 거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사회적으로 심각하게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현신"을 각 개인이 가진 바 자원을 자원적으로 바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발적 현신이 이루어질 때 공동체라는 집단이 성립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현신의 자발성이 상실된 때에 우리는 퇴폐적 정신성이 있든다고 본다. 퇴폐현상의 근본 이유에 대하여 물간은 이렇게 말한다. "공동체 생활이 잘 발달되지 않은 곳에 사람들의 순수한 사귐을 가지려는 경향보다 더 뚜렷한 목적을 가진 노동조합, 교회, 취직, 금주협회, 자연연구클럽, 음악회, 전문적 학회 또는 농촌기관 등에 참여하는데 열중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부살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생활을 상업상의 경유와 같이 "돈주고 사려는" 노력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술집이나 나이트 클럽이나 영화관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다." 이것은 순수한 사귐, 인격적 사귐이 아닌 비인간적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말해준다. 퇴폐는 인격적 자발성이 제거된 인간관계에 그 근원이 있으며, 강포가 공격적이고 가학증적인 부정적 정신성이라면 퇴폐는 수납적이고 피학증적인 부정적 정신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퇴폐를 공동체의 피학증적인 정신성이라 한 것은 공동체나 개인의 내부에 자리잡은 불의한 질서에 대하여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즐기는 상태로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불륜한 음란한" 행실이 퇴폐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퇴폐는 어떤 때는 사치와 같은 형태, 의미없는 자원의 낭비와 같은 생활양식 등으로 맨 처음 정착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공동체적 연대감은 손상된다. 강포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퇴폐는 공동체를 해체시킨다. 즉 강포가 공동체적 관계를 파괴하여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퇴폐는 공동체를 결합되어 있는 그대로 부숴시켜 분해하여 버리는 기능을 가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두가지 부정적 정신성의 발생원인을 분별하여 보면 이들은 모두 인간의 허위성 또는 허무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없다. 즉 유적 존재 또는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 공동체적 특성을 잃게 하는 것—그것은 허무주의로 규정되며, 허무주의적 사회 상황은 실존적 개인 사이에 서로의 교감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주관적인 공동체 사고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는 바로 허위성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허위(falsehood)는 개인이나 집단들의 사이를 이간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서도 사회에서 부정·부폐와 같은 제도적 부정의를 유발시킨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를 파멸케하는 세가지 부정적 정신성을 허위—강포—퇴폐로 파악하여 신뢰—성실—현실의 창조적 정신성에 대응시킬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제공하는 종교를 떠난 상대적인 사회적 가치관에서 정신성을 분석하였을 때도 이와 같은 정신성의 일반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칼·바르트는 이같이 말한다.

“시민 공동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자연법으로부터 도출된 신념을 더듬거리며 찾거나 실험할 수 있는 것 뿐이다. 그리고 자연법을 최종적인 권위로 여기고 거기에 의존하고 …어느 정도 세련된 실증주의를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의 환상이 되어 버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언급한 부정적 정신과 같이 사회적 사활이 달린 중요한 요인들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아직도 공동체적 특질이 현대 사회에도 맥락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 잠재하여 있는 공동체의 존재가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균형 있게 살려간다고 본다. 아마도 이것은 전체 사회의 몰락이 가져올지도 모를 위기에 대한 공동체적 본능의 반사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 공동체적 본성이 비공식적 생활권(informal life)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신성들이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메카니즘이 있다. 이 정신들은 그 내용이 성장해 갈수록 사회적인 외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허위는 부정과 부폐의 유형으로 형태화되며, 강포(폭력성)는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폭력 또는 매점매석과 같은 경제적인 폭력으로 형태화되며, 퇴폐는 사치와 음란과 잔음,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퇴행현상으로 형태화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논리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로 인해 사회의 부정적 정신성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의 정신 상태에 대하여 ‘래드 테이프’(red tape)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막스 베버’는 이같이 논술한 적이 있다.

“공동 사회(Gemeinschaft)에서 연장자의 상대적 지위는 매우 유동적이다. 식량 사정이 각박한 곳에서는 노동력이 상실될 경우 물질 아픈 존재가 된다. 전쟁 상태가 만성화된 곳에서는 전쟁 능력에 의해 원로의 의미가 격하되며 원로의 위치에 대항하는 짚은 층의 민주주의적 구호가 등장한다. [육십이 넘으면 다리 밖으로 던져 버려라] 경제적 정치적 유혈 또는 무혈혁명의 새로운 질서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며 종교사상이나 전통의 성스러움에 대한 두려움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거나 사양기에 들어간 경우에도 노인의 경우에도 노인의 권위는 격하된다. 반면 경험의 객관적 유통성이나 전통의 주관적 세력이 강력히 평가되는 곳에서는 노인의 평가는 훈들리지 않는다.”

이는 연장층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래드 테이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우리는 ‘흄’과 ‘엘리후’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느니라…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깁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라는 대목을 찾아본다. 가난한 자, 환난받는 자, 소외된 자들의 피로움이 ‘래드 테이프’로 설정될 수 있다는 시사이다. 음란의 도가 지나쳐 가정에까지 밀려들어올 때, 그 보다도 사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들이나 계층의 숨은 생활들이 퇴폐하기 짹이 없고, 사회적 책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비되었을 때 마지막히 사회적인 변혁을 시도하여야 할 경종이 울리는 때이다. 또한 옳지 않은 사랑의 관계, 육욕적인 관련에서 태어나거나 태어날 생명을 죽이는, 퇴폐와 강포의 두 정신성이 결합된 ‘낙태’라는 현상은 가장 중요한 사회 정신성의 래드 테이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을 계측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상대적인 계량화를 통하여 정책 결정의 바로 메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학의 역할이 기대되는 영역이다. 실제로 금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정치나 경제적 과정을 세력 집단간의 교섭과정이라고 보는 견해가 발달되면서, 특정집단의 의식이나 특질을 상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사회학적인 조사방법이 많이 개발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학문적 발전을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미시적(microscopic) 사회 형태와 사회 전반적인 거시적(macrosopic) 동태 및 구조적 논의를 학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본다.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 또 공동체 간의 관계에 있어서 파괴적이고 분리적인 역할을 하는 세가지 부정적 정신성의 상호관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혼존하는 공동체 파괴 현상은 이 세가지 정신성으로 선명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미 언급하였듯이 허위는 사회의 부정부폐의 심

도, 강포는 사회적 폭력의 빈도와 강도, 퇴폐는 사회적 성적 흡란 현상의 강도에 의하여 계량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만일 인류의 가는 길이 이익사회의 성립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개인과 공동체와 또 공동체들의 내적 통합에 의한 유적인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위에 논술한 세가지 부정적 정신성의 증가는 공동체적 사관에서 볼 때 하나의 퇴행현상이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세가지 부정적 정신성은 오랜 역사에 걸쳐 인류의 가치관 속에 사회적 불의라고 명백히 규정되어진 것으로서, 만일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의(Righteousness, 공평과 결속적 애정의 합체개념)를 지향할 때에는 신뢰-성실-헌신의 정신성을 살리고 허위-강포-퇴폐를 단호하게 추방하여야 될 것이다. 기존의 정치경제학의 주류 사상들이 그 논리 전개의 기반으로 공리주의를 채택한 결과, “자타공통의 행복추구”라는 공리적 기본 개념이 실천과정에서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움직여 왔다고 생각된다면, 새로운 가치관-즉, “자타공통의 의로움에 기준한 행복에의 추구”-을 추구하는 정치경제사상을 확립시켜야만 참된 공동체적 미래가 인류에게 제시되리라고 본다. 우리는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의로운 정신성만이 사회의 공동체적인 생명력을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

## 칼빈의 주석 방법론

Richard C. Gamble

번역: 남현우

### 1. 서 론

1985년 봄에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에 “칼빈의 해석학에 대한 간결하고 용이한 이해(brevitas et facilitas:toward an understanding of Calvin's Hermeneutics)”라고 명명되어진 한 논설이 발표되었다. 그 논설은 칼빈연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몇가지 의문들에 답하려고 했다. 1974년에 Nauta교수는 칼빈 신학의 주제와 원천(들)은 “근원적으로 다루어졌고 철저히 연구되었다”<sup>1)</sup>고 말했다. 8년 후에 W.H. Neuser교수는 국제적인 칼빈 탐구에서 위대한 과업은 칼빈의 신학을 민족할만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Josef Bohatec의 “사선(斜線)의 신학의 발견”과 F.L Battles의 “한계이론”에 대한 분석을 인용하여 훌륭한 도입을 한다. 앞에 언급된 논설과 현재의 제시가 적은 분량이나마 그 토론에 덧붙여지기를 희망한다.<sup>2)</sup>

첫번째 논설에서의 조사는 칼빈의 주석 방법론을 둘러싸고 있다. 우리는 칼빈이 그의 방법론을 Melanchton과 Bucer의 그것과 비교했다는 것을 주목했다. 그 두 주석가들의 양식은 둘 다 제거되어야 한다. Melanchton의 ‘신학개요’(loci communes) 방법은 제외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확장된 신학토론이 ‘기독교 강요’에 위탁되었기 때문이다.<sup>3)</sup> Bucer의 수다스러움 역

1. D. Nauta, “Stand der Calvinforschung,” *Calvinus Theologus*(ed. W.H. Neuser, Neukirchen-Verluyn, Neukirchener Verlag, 1976) 79.

2. “International Calvin Research,” W.H. Neuser, *Calvinus Reformato : His Contribution to Theology, Church and Society*(ed. B.J. Vander Walt; Potchefstroom; Institute for Reformational Studies, 1982) 4.

3. 참조. the introductory letter to the *Institutes*, 1539. 특히 칼빈과 관련한 멜랑흐톤의 해석학에 대한 뛰어난 요약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Alexandre Ganoczy and Scheld, *Die Hermeneutik Calvins*(이하 *Hermeneutik*이라 함)(Wiesbaden; Fram 2 Steiver Verlag GMBH, 1983) 61~69. 그리고 거기에 인용된 이차적인 문헌을 참조하라.